

BTS, 빌보드 '글로벌 200'에 4곡 동시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밴드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 (My Universe)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3주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사진=BTS 트위터

미국 빌보드가 19일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마이 유니버스'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8위를 기록했다. 전주(12위)보다 6계단 내려왔으나 3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렀다. 핫 100은 빌보드의 주요 차트 중 하나로 음원 다운로드 및 실물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합산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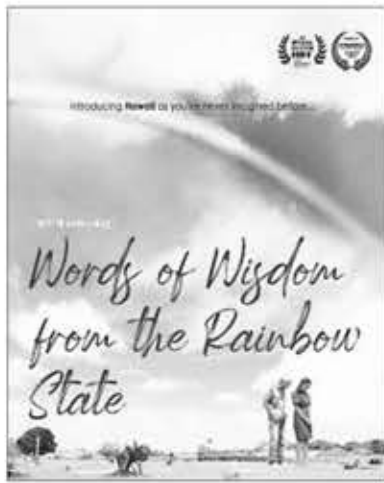
'마이 유니버스'는 핫 100 외에 주요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부 차트 중 하나인 '디지털 송 세일즈'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마이 유니버스' 외의

다른 곡들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BTS는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발표하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4곡을 진입시켰다. '마이 유니버스'가 9위를 기록했으며 '버터' (Butter) 21위, '퍼미션 투 댄스' (Permission to Dance) 41위, '다이너마이트' (Dynamite)가 42위를 차지했다. 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선 지난해 2월 발매된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솔: 7' (MAP OF THE SOUL : 7)이 182위를 기록하며 차트를 지켰다.

한편,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정규 2집 앨범 '흔돈의 장: 프리즈(FREEZE)'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전주(10위)보다 2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미주한인 이민사 다룬 다큐,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초청

11월 4~28일 열리는 제41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단편 다큐멘터리 '무지개 나라의 유산'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이 미주 한인 이민사를 다룬 작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 '무지개 나라의 유산' 포스터. 포스터=나우 프로덕션

20일 영화제 홈페이지(www.HIFF.org)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나우 프로덕션에 따르면 15년 전 하와이에 이민해 현지 한인 앵커와 신문기자, 작가 등으로 활약한 이민영 씨가 '무지개 나라의 유산'의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감독 자신이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탐색해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첫 공식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은 1903년 1월 13일로,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영화는 이들 이민자가 왜, 무엇을 위해 고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에 갔는지 알아가

는 여정을 그린다.

이번에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은 '무지개 나라의 유산' 프로젝트의 프롤로그에 해당한다. 현재 본편에 해당하는 1세대 한인 이민자 후손과의 인터뷰 시리즈물이 제작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주 대법원장에 오른 로널드 문 전 하와이주 대법원장, 한국인 최초 미국 내 시장직에 당선된 해리 김 전 힐로 시장 등 하와이 주류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한인 후손과의 심층 인터뷰로 꾸며진다. 하와이 한인 여성 독립운동사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의 프로젝트 전편은 11월 중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패리스 힐튼 "난 아동학대 피해자"



▲ 패리스 힐튼. 사진=twitter(hehill)

할리우드 스타인 패리스 힐튼(40)이 10대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힐튼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아동학대 경험을 고백하며 보육 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힐튼은 "오늘 패리스 힐튼이 아닌 아동학대 생존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내가 겪은 경험은 오늘까지도 날 유명처럼 따라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힐튼은 "16살이던 어느 날 밤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내 방으로 들어와 쉽게 갈 건지 힘들게 갈 건지 물었다"며 "남치라고 생각해 부모님을 찾으려 소리 질렀지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끌려가는 걸 지켜봤다. 날 구하려 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에선 매일 시설 내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심지어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시설 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이 법이 20년 전 있었다면 트라우마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로 카나(민주) 연방하원의 의원은 시설 내 아동이 부모에게 전화할 수 있고, 깨끗한 식수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다. 카나 의원은 최근 최근 한국전쟁 공식종전 촉구 결의안(HR 152)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